

정례브리핑

2020.2.24(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관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며,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RF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한국의 '샘복지재단'이라는 의료단체에 인도주의적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나오는데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분명치 않아서.

<질문> RFA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재단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하는데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관련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남북 코로나 관련 방역협력 관련해서 진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네, 추가적인 진전 사항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최근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 통일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어서요. 좀 더 질문을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대남 메시지를 조금 자제하는 것 같고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서만 일각, 장관이나 대남 비난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신종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통일부의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첫째, 대남 선전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평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대북' → '대남'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북한 매체들 보도 보면 ‘외부 물자에 대한 소독 방역 강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외부 수입물자 관련 철도나 이런 것들은 줄이거나 막거나 이러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답변> 관련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연기 결정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당초 남북통합문화센터가 3월 말로 개관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 관련 사정도 있고 또 프로그램 준비 일정도 있어서 4월 말 이후로 개최 일정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